



강북구의회
GA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5년 7월 13일
(월요일)

강북신문 5면

구본승·김도연 강북구의원 공동 대표발의한

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


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(행정정보건위원장)과 김도연 의원(복지건설위원장)이 공동 대표발의한 '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'가 7월 10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됐다.

이번 조례는 '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'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됐으며,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임기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,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.

공동 대표발의자인 구본승 의원과 김도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"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, 그 특성에 맞는 교육·사회적 지원 정

책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"고 밝혔다.

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게 됐으며,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동북일보 4면

'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' 조례 제정

공동 대표발의 구본승·김도연 의원,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토대 될 것 기대

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(행정정보건위원장)과 김도연 의원(복지건설위원장)이 공동 대표발의한 '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'가 7월 10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.

이번 조례는 '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'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에 필요한 사



▲ 구본승, 김도연 의원(좌로부터).

항을 담고 있다.

공동 대표발의자인 구본승 의원과 김도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"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, 그 특성에 맞는 교육·사회적 지원 정책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"고 밝혔다.

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게 되었으며,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